

공부로 이끄는 힘

완자 공부력

교과서가 술술 읽히는 서술어 5B

| 정답과 해설 |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타협했다 | 관측했다)

2 ①

3 ②

4 ① ○

② X

5 관측 / 분석 / 경험

6 ①

7 ③

8 (간의 | 측우기)

(관측했다 | 추리했다)



풀이

- 1 '타협하다'는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다.'라는 뜻이므로, 괄호 안에는 '눈이나 기계로 자연 현상이나 기상의 상태, 변화 등을 관찰하여 양, 거리 등을 재다.'라는 뜻의 '관측하다'가 들어가야 알맞다.
- 2 '관측하다'는 '눈이나 기계로 자연 현상이나 기상의 상태, 변화 등을 관찰하여 양, 거리 등을 재다.'라는 뜻으로, ②, ③, ④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①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향하여 내려오다.'라는 뜻의 '하강하다'를 사용해야 알맞다.
- 3 ①에는 '눈이나 기계로 자연 현상이나 기상의 상태, 변화 등을 관찰하여 양, 거리 등을 재다.'라는 뜻의 '관측하다'를 쓰는 것이 알맞다. ① '개선하다'는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등을 고쳐 더 좋게 만들다.'라는 뜻이고, ③ '타당하다'는 '일의 이치로 보아 옳다.'라는 뜻이다.
- 4 ② 일기 예보는 첨단 과학 장비의 관측과 분석, 예보관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더해져 완성된다.
- 5 기상청에서는 여러 장비로 기상 요소를 관측하고, 슈퍼컴퓨터로 자료들을 분석한다. 예보관은 분석 결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더해 최종 예보를 완성한다.
- 6 '관측하다'는 '눈이나 기계로 자연 현상이나 기상의 상태, 변화 등을 관찰하여 양, 거리 등을 재다.'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서는 '관찰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제거하다'는 '어떤 것을 없애 버리다.'라는 뜻이고, ③ '주장하다'는 '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우다.'라는 뜻이다.
- 7 『칠정산』은 일곱 개 천체(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운동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한 책이다.
- 8 간의와 혼천의로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펴낸 『칠정산』 덕분에 조선에 맞는 달력을 만들 수 있었다.





정답

- 1 (정보 | **목표**)
(감추다 | **나아가다**)
- 2 ②
- 3 ②
- 4 ③
- 5 ① **○**
② **×**

- 6 (**추진할** | 반대할)

- 7 ①

- 8 (운동), (추진)

수	운	흡	제	관	물
성	형	동	먼	소	야
막	관	거	추	진	우



풀이

- 1 '추진하다'는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다.'라는 뜻이다.
- 2 '추진하다'는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①, ③, ④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②는 '결심하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3 빈칸에는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다.'라는 뜻의 '추진하다'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① '소모하다'는 '써서 없애다.'라는 뜻이고, ③ '판매하다'는 '상품 등을 팔다.'라는 뜻이며, ④ '표기하다'는 '적어서 나타내다.'라는 뜻이다.
- 4 '추진하다'는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일 등을 처리하여 나가다.'라는 뜻의 '진행하다'와 뜻이 비슷하다. ① '관측하다'는 '눈이나 기계로 자연 현상이나 기상의 상태, 변화 등을 관찰하여 양, 거리 등을 재다.'라는 뜻이고, ② '복원하다'는 '원래대로 회복하다.'라는 뜻이며, ④ '형성하다'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를 이루다.'라는 뜻이다.
- 5 ② 유관순은 일본 헌병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 만세를 부를 준비를 했다.
- 6 독립 만세 운동을 끝까지 진행한다는 의미이므로, 괄호 안에는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다.'라는 뜻의 '추진하다'가 들어가야 알맞다.
- 7 ①의 '추진하다'는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다.'라는 뜻이다. ②는 '저장하다', ③은 '생활하다'의 뜻이다.
- 8 전봉준과 농민들은 군수의 횡포에 맞서 싸웠고 이러한 움직임은 동학 농민 운동으로 이어졌다. 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정부는 청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농민군은 정부와 합의를 맺고 해산한 뒤 개혁을 추진했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 1 (깨끗한 | **더러운**)
(**깨끗하게** | 더럽게)
- 2 ㉠
- 3 ④
- 4 ②

5 (혼합물), (정화)

혼	적	흡	상	태	물
소	합	양	면	소	정
다	관	물	갑	검	화

- 6 ②
- 7 5360 / 53600



풀이

- 1 '정화하다'는 '더러운 것을 걸러 내어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 2 ①, ②의 빈칸에는 '정화하다'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은 무분별한 개발이 생태계를 파괴 또는 훼손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문장이므로 ㉠의 빈칸에는 '파괴하다', '훼손하다'와 같은 낱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 3 빈칸에는 '더러운 것을 걸러 내어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의 '정화하다'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① '고정하다'는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하다.'라는 뜻이고, ② '보완하다'는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며, ③ '소통하다'는 '오해가 없도록 뜻을 서로 통하다.'라는 뜻이다.
- 4 ①의 '정화하다'는 '더러운 것을 걸러 내어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①은 '형성되다'의 뜻이고, ③은 '인식하다'의 뜻이다.
- 5 흙탕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성질이 변하지 않고 섞인 혼합물이며, 간이 정수기로 흙탕물을 정화해 깨끗한 물을 얻는다.
- 6 '더러운 것을 걸러 내어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의 낱말은 '정화하다'이다. ① '반박하다'는 '어떤 의견이나 주장 등에 반대하여 말하다.'라는 뜻이고, ③ '짐작하다'는 '사정이나 형편을 대강 헤아리다.'라는 뜻이다.
- 7 첫 번째 빈칸에는 536의 10배인 5360이 들어가야 한다. 우유 1 L는 우유 0.1 L의 10배이므로, 두 번째 빈칸의 물의 양은 5360의 10배인 53600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 1 ②
- 2 (보관해야 | 수확해야)
- 3 수확하다
- 4 ③
- 5 버림
- 6 ① 2500
② 25
- 7 ③

- 8 ① ①
② X
- 9 ① ㄱ
② L



풀이

- 1 위 문장에서 '수확하다'는 '익거나 다 자란 곡식, 채소, 과일 등을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이다. ①은 '심다'의 뜻이다.
- 2 '보관하다'는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다.'라는 뜻이므로, 괄호 안에는 '익거나 다 자란 곡식, 채소, 과일 등을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의 '수확하다'가 들어가야 알맞다.
- 3 제시된 문장에서 '거두어들이다'는 굴을 따서 모아서 들인다는 의미이므로, '익거나 다 자란 곡식, 채소, 과일 등을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의 '수확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4 ㉠에는 '익거나 다 자란 곡식, 채소, 과일 등을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의 '수확하다', '거두어들이다'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해석하다'는 '문장이나 사물 등으로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다.'라는 뜻으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5 사과를 나누어 필요한 상자에 담는 문제와 같이 남는 양을 처리할 때는 어렵기 방법 중 구하려는 자리의 아래 수를 버려서 0으로 나타내는 버림을 이용한다.
- 6 ① 2536 kg에서 36 kg은 담을 수 없으므로 2536 kg을 버림하여 백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2500 kg이다.
② 버림한 수인 2500 kg을 100 kg으로 나누면 최대 25상자까지 담을 수 있다.
- 7 '수확하다'는 '익거나 다 자란 곡식, 채소, 과일 등을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이다. ③은 감자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넣어 관리한다는 의미이므로 '수확하다' 대신 '보관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8 ②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돌이나 나무 도구를 사용했다.
- 9 ① 반달 돌칼을 사용해 곡식을 수확했고, ② 민무늬 토기에 곡식을 보관했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예측하다

2 ①

3 ③

4 ②

5 ① 25 / 6 / 200 / 8 / 250 / 25 / 10

② 텃밭 가꾸기

6 ④

7 ① ○

② X

③ ○

8 예측 / 대처



풀이

- 1 '어떤 것을 미리 헤아려 짐작하다.'는 '예측하다'의 뜻이다.
- 2 '예측하다'는 '어떤 것을 미리 헤아려 짐작하다.'라는 뜻으로, '앞일을 미리 헤아리다.'라는 뜻의 '내다보다'와 뜻이 비슷하다. ② '보전하다'는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다.'라는 뜻이고, ③ '적합하다'는 '일이나 조건 등에 꼭 알맞다.'라는 뜻이며, ④ '판매하다'는 '상품 등을 팔다.'라는 뜻이다.
- 3 화산학자가 화산 폭발 가능성을 짐작했다는 의미이므로, '내다보다', '예측하다'를 넣을 수 있다. '형성하다'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를 이루다.'라는 뜻으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4 '예측하다'는 '어떤 것을 미리 헤아려 짐작하다.'라는 뜻으로, ①, ③의 쓰임은 적절하다. ②는 작년에 갔던 여행을 돌이켜 생각한다는 의미이므로 '회상하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5 ① 각 행사의 만족도 점수의 평균은 합계를 인원 수로 나누어 구한다.
② 각 행사 만족도 점수의 평균 중, 텃밭 가꾸기의 평균이 가장 높으므로 내년에 열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
- 6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미리 짐작한다는 의미이므로, ㉠에는 '어떤 것을 미리 헤아려 짐작하다.'라는 뜻의 '예측하다'가 들어가야 알맞다. ① '발명하다'는 '지금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내다.'라는 뜻이고, ② '복구하다'는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다.'라는 뜻이며, ③ '수행하다'는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내다.'라는 뜻이다.
- 7 ② 인공지능(AI)은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날씨와 비슷한 상황을 찾을 수 있다.
- 8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일기 예보 기술은 날씨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여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했나요?



부족함

보통

잘함

본문 32쪽



독해 Point

5학년 2학기 과학 교과서 내용 중,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에요. 스마트팜의 개념은 무엇이고,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의 기능은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어 보세요.

- ① 한 지역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채소나 과일 같은 작물이 잘 자라도록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해 재배 환경을 관리하는 농장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팜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스마트팜의 의미

⇒ 스마트팜은 첨단 기술을 적용해 재배 환경을 관리하는 농장입니다.

- ② 스마트팜은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적절히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천장에 달린 센서가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 후, 창문을 자동으로 열거나 닫아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절합니다. 덕분에 스마트팜에서는 날씨 변화와 관계없이 일 년 내내 신선한 작물을 안정적으로 **수확합니다**.

스마트팜의 기능 ①

⇒ 스마트팜은 온도와 습도를 관측하고 조절하며 최적의 환경을 유지합니다.

- ③ 또한 스마트팜은 물을 절약합니다. 작물이 흡수하고 배출한 양액(영양분이 섞인 물)을 버리지 않고 여과 장치로 걸러 내고 살균하여 깨끗한 양액으로 **정화합니다**. 그리고 이 양액을 작물 재배에 다시 사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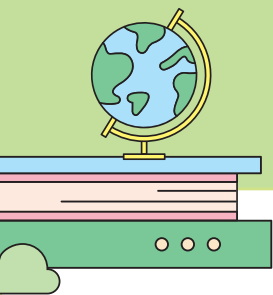
스마트팜의 기능 ②

⇒ 스마트팜은 남은 양액을 정화해 재사용하여 물을 절약합니다.

- ④ 마지막으로 스마트팜은 농장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작물을 얼마나 거두어들일 수 있을지 **예측합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의 적용으로 다양한 기능을 지닌 스마트팜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식량을 얻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팜의 기능 ③

⇒ 스마트팜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장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1 ① X

2 ② O

2 ①

3 수확 / 정화 /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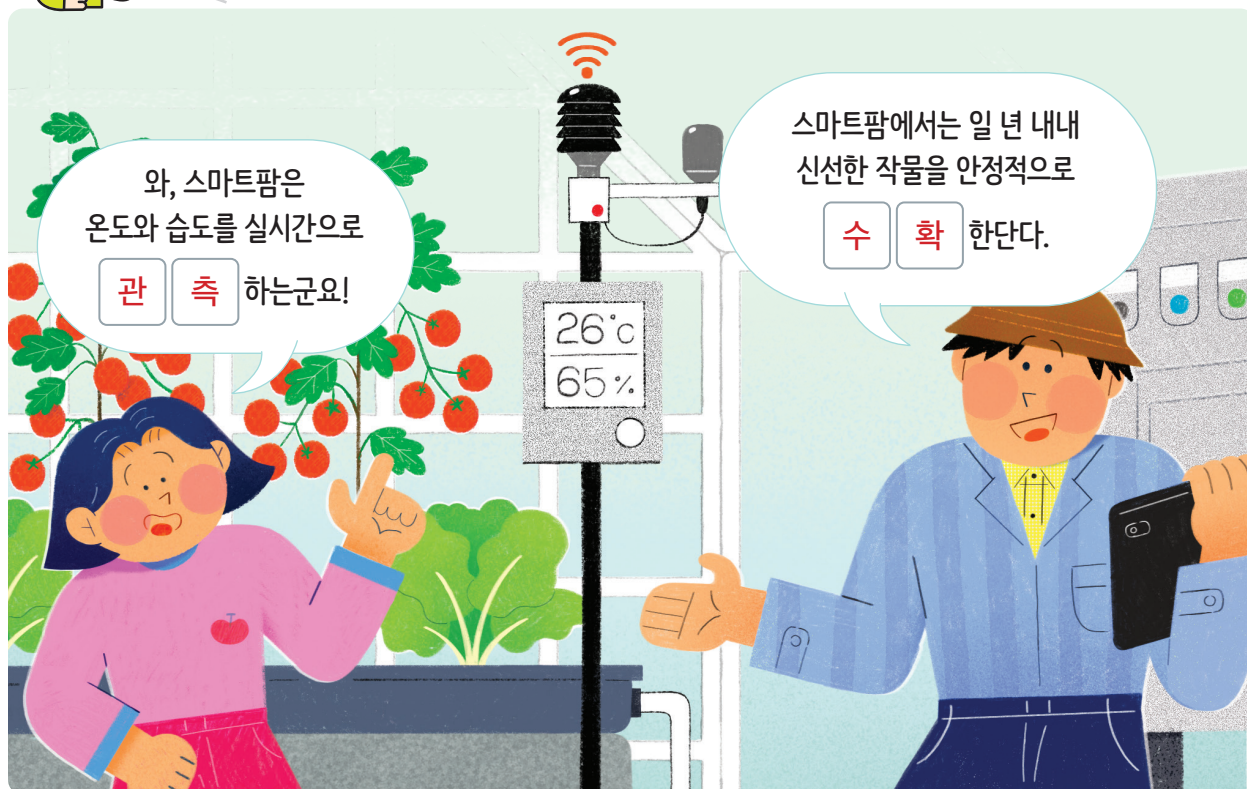
4 ④



- 1 ① 스마트팜은 날씨 변화에 관계없이 작물이 자라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한다.
- 2 '수확하다'는 '익거나 다 자란 곡식, 채소, 과일 등을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으로, '곡식이나 열매 등을 따서 담거나 한데 모아서 들이다.'라는 뜻의 '거두어들이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구입하다'는 '물건 등을 사들이다.'라는 뜻이고, ③ '내다보다'는 '앞일을 미리 헤아리다.'라는 뜻이며, ④ '수집하다'는 '취미나 연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으다.'라는 뜻이다.
- 3 스마트팜은 온도와 습도를 관측해 작물을 안정적으로 수확하며, 작물이 배출한 양액을 정화해 물을 절약한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 4 이 글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에 대한 내용이므로 ④가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다.



공부한 서술어를 활용해 말풍선을 완성하세요.





부족함

보통

잘함

본문 37~39쪽



정답

1 ① ㉠

② ㉡

2 (훼손했다 | 설계했다)

3 ①

4 ① 5 / 5 / 15 / 0.15

② 6 / 6 / 12 / 0.12

③ 현아

5 ③

6 (하게 | 하지 못하게)

(따뜻한 | 차가운)



풀이

- ①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므로 '설계하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는 물건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전개도로 그려서 나타낸다는 것이므로 '설계하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훼손하다'는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들다.'라는 뜻이므로, 괄호 안에는 '집을 짓거나 물건을 만들 때 계획을 세워 도면 등으로 나타내다.'라는 뜻의 '설계하다'가 들어가야 알맞다.
- ㉠의 '설계하다'는 '계획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구상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설치하다'는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나 설비 등을 베풀어 두다.'라는 뜻이고, ③ '추측하다'는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리다.'라는 뜻이다.
- (소수) × (소수)의 곱셈은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구할 수 있다. 현아의 계산 결과는 0.15, 준호의 계산 결과는 0.12이므로 이긴 사람은 현아이다.
- ㉡의 '설계하다'는 '집을 짓거나 물건을 만들 때 계획을 세워 도면 등으로 나타내다.'라는 뜻으로, ①, ②와 같이 쓸 수 있다. ③은 꿈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이므로 '계획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물체의 온도를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단열이 중요하므로,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컵을 뽁뽁이로 감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변의 따뜻한 공기가 이동해서 얼음을 녹일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상자의 뚜껑을 닫았다.





정답

1 (균형) | 생각)

(낮추어 | 맞추어)

2 ㉠

3 ㉡

4 ① ㉠

② X

5 ㉢

6 ㉢

7 스탠드 / 점화기 / 초 / 구리판 / 고정 집게

8 ㉠



풀이

- 1 '조절하다'는 '균형이 맞게 바로잡다.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가다.'라는 뜻이다.
- 2 ㉠, ㉡, ㉢ 모두 '균형이 맞게 바로잡다.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가다.'라는 뜻의 '조절하다'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은 깔끔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이므로 '치우다', '정리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3 ㉠의 '조절하다'는 '균형이 맞게 바로잡다.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가다.'라는 뜻이다. ㉠은 '확대하다'의 뜻이다.
- 4 ㉡ 반달 돌칼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은 끈을 끼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 5 이 글은 청동기 시대 유물인 반달 돌칼에 대한 내용이다. 반달 돌칼은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수확 도구로 쓰였으므로 ㉢이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다.
- 6 '조절하다'는 '균형이 맞게 바로잡다.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가다.'라는 뜻으로, '어떤 기준이나 상황에 맞게 정돈하다.'라는 뜻의 '조정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고정하다'는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하다.'라는 뜻이고, ㉡ '상승하다'는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이다.
- 7 이 글에서 설명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스탠드, 점화기, 초, 열 변색 붙임딱지를 붙인 구리판, 고정 집게'가 필요하다.
- 8 그림에서 구리판이 촛불에 직접 닿아 있으므로, 촛불에 직접 닿지 않게 구리판의 높이를 높인다.





정답

1 ① ㉠

2 ㉡

3 ㉢

2 ①

3 ①

4 ②

5 (섞이는 | 섞이지 않는)

6 ②

7 진흥왕 / 비석



풀이

- 1 ①의 '흡수하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 등을 내부로 모아들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②와 ③의 '흡수하다'는 '빨아서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2 제시된 문장에서 종이가 잉크를 빨아서 거두어들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빨아들이다', '흡수하다'를 넣을 수 있다. ① '밀집하다'는 '빈틈없이 뽁뽁하게 모이다.'라는 뜻으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3 ㉠의 '흡수하다'는 '빨아서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이다. ②는 '수확하다'의 뜻이고, ③은 '흡수하다'의 또 다른 뜻이다.
- 4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 흡착포로 바다에 퍼진 기름을 흡수하기 위해서이다.
- 5 물과 기름의 혼합물은 두 물질이 서로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 분리할 수 있다.
- 6 ㉠의 '흡수하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 등을 내부로 모아들이다.'라는 뜻으로, ㉠은 가야의 땅과 사람들이 신라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7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진흥왕은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비석을 세웠다. 사진 속 비석은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 북한산에 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이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①

2 ㉠

3 ③

4 $\frac{15}{100}$

5 0.75 / 0.75

6 ③

7 ① ㉠

② ㉠

③ X

8 화석연료 / 재생



풀이

- 1 '소모되다'는 '쓰여 없어지다.'라는 뜻이다. ②는 '폐지되다', ③은 '분실되다'의 뜻이다.
- 2 '소모되다'는 '쓰여 없어지다.'라는 뜻으로, ㉠, ㉡, ㉢의 빈칸에는 모두 '소모되다'를 쓰기에 적절하다. ㉠은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 생긴다는 의미이므로 '생성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3 '소모되다'는 '쓰여 없어지다.'라는 뜻이므로, ③에서의 쓰임이 알맞다. ①에는 '쌓이다' 또는 '축적되다', ②에는 '향상되다' 등의 낱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4 (소수) × (자연수)의 곱셈인 0.15×5 에서 소수 0.15는 분수 $\frac{15}{100}$ 로 바꾸어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수 있다.
- 5 $15 \times 5 = 75$ 이고 0.15는 15의 $\frac{1}{100}$ 배이므로 0.15×5 는 75의 $\frac{1}{100}$ 배인 0.75이다.
- 6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은 '쓰여 없어지다.'라는 뜻의 '소모되다'이다. ① '매장되다'는 '지하자원 등이 땅속에 묻히다.'라는 뜻이고, ② '보호되다'는 '잘 지켜 원래대로 보존되다.'라는 뜻이며, ④ '흡수되다'는 '빨아서 거두어들이다.' 또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 등을 내부로 모아들이다.'라는 뜻이다.
- 7 ㉠ 풍력, 수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
- 8 오염 물질이 발생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





정답

- 1 (새롭게 | **알맞게**)
(다르게 | **맞추어**)

2 적용했다

3 ①

4 ①

5 읽고

6 ① L

2 ㉠

3 C

7 ③

8 (대응각 | **대응변**)

(**같다** | 다르다)

9 80 / 3



풀이

- '적용하다'는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쓰다.'라는 뜻이다.
- 빈칸에는 공통으로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쓰다.'라는 뜻의 '적용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적용하다'는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쓰다.'라는 뜻으로, 이와 유사한 뜻을 가진 '이용하다', '활용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① '남용하다'는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쓰다.'라는 뜻이다.
- '적용하다'는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쓰다.'라는 뜻이다. ②는 '수행하다'의 뜻이다.
- 서술어인 '했다'는 '책'과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빈칸에는 목적어에 맞는 서술어를 써야 한다. 즉, 빈칸에 '읽고'를 쓰면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숙제를 했다.'라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완성된다.
- ①은 '어디에'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빠졌으므로 '나는 어제 공원에 갔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 ②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빠졌으므로 '여동생이 공책을 책상 위에 두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 ③은 '왜냐하면'과 서술어 간의 호응이 맞지 않으므로 '왜냐하면 책꽂이를 정리했기 때문이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
- 합동인 두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 나머지 도형의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에는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쓰다.'라는 뜻의 '적용하다'가 들어가야 한다. ① '구분하다'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다.'라는 뜻이고, ② '변경하다'는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치다.'라는 뜻이다.
- 합동인 두 도형을 완전히 겹치도록 포개었을 때 겹치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한다.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
- 변 ㄴ의 대응변은 변 ㄹ이고, 대응변의 길이는 서로 같으므로 변 ㄹ의 길이는 3 cm이다. 각 ㄴ의 대응각은 각 ㄹ이고, 대응각의 크기는 같으므로 각 ㄹ의 크기는 80°이다.





독해 Point 5학년 2학기 과학 교과서 내용 중,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사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에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며 읽어 보세요.

- ① 우리는 매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에너지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이유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살펴볼까요?

⇒ 사람들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② 건축가들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벽이나 바닥 등에 단열재를 넣어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거나, 건물 내에 스마트 홈 기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물 설계 방법 ① 을 설치해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물 설계 방법 ② . 이러한 방법은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막습니다.

⇒ 건축가들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합니다.

- ③ 에너지 관리 기술을 마을 전체에 적용하여 외부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 에너지 자립 마을의 의미 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도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 홍성의 원천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설치된 태양 전지가 햇빛을 흡수하여 가정용 전기를 직접 생산합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 ① 펠트하임이라는 마을에서는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마을에 필요한 에너지 전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 ② 를 생산합니다.

⇒ 에너지 자립 마을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합니다.

- ④ 우리도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방에 켜 둔 전등을 끄거나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로 맞추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낭비를 막고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에너지 절약 방법

⇒ 우리도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1 ① ○
2 ② X
3 ③ ○
4 ④



- 1 ② 건물에 단열재를 넣는 것은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므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 2 스마트 홈 기술을 설치해 건물 내 온도를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맞춘다는 의미이므로 ㉠에는 '조절하다'가 들어야 알맞다. ① '배출하다'는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내다.'라는 뜻이고, ③ '추측하다'는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리다.'라는 뜻이며, ④ '포용하다'는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이다.'라는 뜻이다.
- 3 우리나라 홍성의 원천 마을에서는 태양 전지를 통해 가정용 전기를 생산한다.
- 4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하므로, 전등을 모두 켜는 것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



공부한 서술어를 활용해 말풍선을 완성하세요.





정답

1 ① ㉠

2 ㉠

2 (가능했다 | 불가능했다)

3 ②

4 ①

5 ②

6 $\frac{1}{2} / 1$

7 ①

8 ① X

2 O

3 X

9 (양인 | 천인)



풀이

- ① '불가능하다'는 '할 수 없거나 될 수 없다.'라는 뜻이고, ② 반대말인 '가능하다'는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다.'라는 뜻이다.
- '인터넷이 없던 때에는 해외 소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이므로, 괄호 안에는 '할 수 없거나 될 수 없다.'라는 뜻의 '불가능하다'가 들어가야 알맞다.
- 빈칸에는 '할 수 없거나 될 수 없다.'라는 뜻의 '불가능하다'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① '감상하다'는 '예술 작품 등을 보거나 듣거나 읽으며 이해하고 즐긴다.'라는 뜻이고, ③ '해산하다'는 '모였던 사람이 흩어지다. 또는 흩어지게 하다.'라는 뜻이다.
- ①의 '불가능하다'는 '할 수 없거나 될 수 없다.'라는 뜻이다. ②는 '공유하다'의 뜻이다.
- 동전에는 그림이 있는 면과 숫자가 있는 면이 있으므로, 동전 한 개를 한 번 던졌을 때 그림이 있는 면이 나올 가능성은 반반이다.
- 홀수인 1, 3, 5가 나올 가능성은 $\frac{1}{2}$, 1 이상이 나올 가능성은 1이다.
- ㉠의 '불가능하다'는 '할 수 없거나 될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다.'라는 뜻의 '가능하다'와 뜻이 반대이다. ② '가득하다'는 '빈 데가 없을 만큼 사람이나 물건 등이 많다.'라는 뜻이고, ③ '상승하다'는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이며, ④ '증가하다'는 '양이나 수가 늘다.'라는 뜻이다.
- ① 양인의 피지배층은 대부분 농민이었다. ③ 고려 시대에는 노비가 재산을 모아 권력을 가진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양인이 되기도 했다.
- 천인에 속하는 노비가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신분보다 높은 계급이 되길 요청하는 모습이므로, 괄호 안에는 양인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 1 ①
2 ③
3 ㉠
4 ②
5 ① ㉠
2 X

- 6 거름 / 증발
7 ②
8 ①
9 이성계 / 조선



풀이

- 1 위 문장의 '제거하다'는 '어떤 것을 없애 버리다.'라는 뜻이다. ②는 '새기다'의 뜻이고, ③은 '구현하다'의 뜻이다.
- 2 '없애다'는 '어떤 것을 없애 버리다.'라는 뜻의 '제거하다'와 뜻이 비슷하다. ① '구별하다'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다.'라는 뜻이고, ② '수확하다'는 '익거나 다 자란 곡식, 채소, 과일 등을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이다.
- 3 ㉠, ㉡은 '제거하다'를 사용하기에 알맞지만, ㉢은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치다.'라는 뜻의 '제공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4 ㉠과 <보기>의 빈칸에는 '어떤 것을 없애 버리다.'라는 뜻의 '제거하다'가 들어가야 알맞다. ① '보충하다'는 '부족한 것을 보태어 채우다.'라는 뜻이고, ③ '제작하다'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들다.'라는 뜻이다.
- 5 ㉡ 거름 장치로 물에 녹지 않은 고체 물질을 제거한 다음, 거름 장치를 빠져나온 즙을 가열해 물을 증발시켜야 설탕을 얻을 수 있다.
- 6 물에 용해되는 성질이 다른 고체 혼합물을 물에 섞어 거름 장치로 거르고, 거름종이를 빠져나간 용액에서 물을 증발시키면 물에 녹은 고체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
- 7 '제거하다'는 '어떤 것을 없애 버리다.'라는 뜻으로, '없애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① '구성하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룬다.'라는 뜻이고, ③ '파악하다'는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성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알다.'라는 뜻이다. ④ '포함하다'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하거나 함께 넣다.'라는 뜻이다.
- 8 이성계는 조선을 세운 인물이며, 고려를 세운 인물은 왕건이다.
- 9 이성계는 1392년 조선을 세웠다.





정답

1 (충돌 | 판단)
(결론 | 문제)

2 ①

3 도출했다

4 ②

5 ① ○
② X

6 주제 / 의견 / 토의

7 ①

8 ②

9 (가열 | 흡수)
(대류 | 전도)



풀이

- 1 '도출하다'는 '어떤 판단이나 결론 등을 이끌어 내다.'라는 뜻이다.
- 2 '도출하다'는 '어떤 판단이나 결론 등을 이끌어 내다.'라는 뜻으로, ①에는 '어떤 의견이나 주장 등에 반대하여 말하다.'라는 뜻의 '반박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3 '내다'는 '어떤 판단이나 결론 등을 이끌어 내다.'라는 뜻의 '도출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4 결론을 냈다는 의미이므로 ①에는 '어떤 판단이나 결론 등을 이끌어 내다.'라는 뜻의 '도출하다'가 들어가야 알맞다. ① '검색하다'는 '책이나 컴퓨터에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내다.'라는 뜻이고, ③ '제거하다'는 '어떤 것을 없애 버리다.'라는 뜻이며, ④ '해석하다'는 '문장이나 사물 등으로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다.'라는 뜻이다.
- 5 ② 여러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열띤 대화가 이어졌다.
- 6 토의는 토의 주제 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의견 나누기, 의견 모으기, 의견 결정하기, 토의 과정 되돌아보기를 거친다.
- 7 '도출하다'는 '어떤 판단이나 결론 등을 이끌어 내다.'라는 뜻이다. ②는 '대처하다'의 뜻이다.
- 8 물이 든 냄비를 가열할 때 온도가 높아진 물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②가 대류의 예이다. 알갱이의 크기가 다른 감자와 흙을 걸러 내는 ①은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이다.
- 9 물이 든 냄비를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물은 아래로 밀려 내려온다. 이처럼 온도가 높아진 물질이 직접 움직이면서 열이 이동하는 것을 대류라고 한다. 전도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물체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답

- | | |
|-----------------|-------|
| 1 ② | 6 신분제 |
| 2 ③ | 7 ① |
| 3 (확보하고) 운행하고 | 8 영우 |
| 4 ④ | |
| 5 ① L | |
| ② C | |
| ③ 7 | |



풀이

- 제시된 문장에서 '확보하다'는 '어떤 것에 대해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보여 주거나 어떤 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다. ①은 '수확하다'의 뜻이다.
- '확보하다'는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다.'라는 뜻의 '보유하다'와 뜻이 비슷하다. ① '개선하다'는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등을 고쳐 더 좋게 만들다.'라는 뜻이고, ② '도출하다'는 '어떤 판단이나 결론 등을 이끌어 내다.'라는 뜻이며, ④ '제안하다'는 '안이나 의견으로 내놓다.'라는 뜻이다.
- '운행하다'는 '차량 등이 정해진 도로나 목적으로 삼는 곳을 오고 가다.'라는 뜻이므로, 괄호 안에는 '어떤 것에 대해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보여 주거나 어떤 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확보하다'가 들어가야 알맞다.
- ㉠에는 '어떤 것에 대해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보여 주거나 어떤 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확보하다'가 들어가야 알맞다. ① '조사하다'는 '어떤 내용을 알기 위해 자세히 살피거나 알아보기.'라는 뜻이고, ② '축소하다'는 '모양이나 규모 등을 줄여서 작게 하다.'라는 뜻이며, ③ '평가하다'는 '어떤 대상의 가치나 수준 등을 헤아려 정하다.'라는 뜻이다.
- ①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양반은 상민과 같은 처지가 되었으며, ② 돈을 많이 번 상민은 공명첩을 사서 양반처럼 지냈다. ③ 왕실과 관청의 노비는 해방되어 세금을 내게 되었다.
- 이 글은 조선 후기에 일어난 신분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확보하다'는 '어떤 것에 대해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보여 주거나 어떤 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므로, ㉠은 넓은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가상 현실(VR) 영상을 체험할 때는 어지럼증을 느끼고 넘어질 수 있으므로 고정된 자리에서 체험해야 한다. 따라서 돌아다니며 체험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한 영우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힘 | 꿈)

(받다 | **미치다**)2 (수용해 | **작용해**)

3 ③

4 ①

5 ① $19/9 \frac{1}{2} / 47/23 \frac{1}{2}$

② 화성

6 ②

7 ③

8 ① L

② ㄱ



풀이

- 제시된 문장에서 '작용하다'는 '어떠한 힘이나 원인이 다른 대상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다.
- '수용하다'는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라는 뜻이므로, 괄호 안에는 '어떠한 힘이나 원인이 다른 대상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의 '작용하다'가 들어가야 알맞다.
- 빈칸에는 '어떠한 힘이나 원인이 다른 대상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의 '작용하다'가 들어가야 알맞다. ① '구분하다'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다.'라는 뜻이고, ② '암시하다'는 '넌지시 알리다.'라는 뜻이다.
- ㉠에는 '어떠한 힘이나 원인이 다른 대상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의 '작용하다'가 들어가야 알맞다. ② '적합하다'는 '일이나 조건 등에 꼭 알맞다.'라는 뜻이고, ③ '점검하다'는 '날날이 검사하다.'라는 뜻이다.
- ① 자연수와 분자를 곱해 약분하여 답을 구한다.
② 화성에서의 무게는 $9 \frac{1}{2}$ kg, 토성에서의 무게는 $23 \frac{1}{2}$ kg이므로, 산소통의 무게가 더 가벼운 곳은 화성이다.
- ㉠의 '작용하다'는 '어떠한 힘이나 원인이 다른 대상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다. ①은 '전하다', ③은 '생활하다'의 뜻이다.
-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다.
- ① 저기압의 날씨는 주로 흐리며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고, ② 고기압의 날씨는 주로 맑고 화창하다.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했나요?



본문 80쪽



독해 Point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 중, 조선 시대에 지어진 수원 화성에 대한 글이에요. 수원 화성의 건설 기간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와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받는 이유를 파악하며 글을 읽어 보세요.

- 1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 화성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조는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인 정약용에게 수원 화성을 짓는 데 필요한 계획과 기술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 정조는 정약용에게 수원 화성을 짓는 데 필요한 계획과 기술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 2 정약용은 여러 서적을 살펴보고 무거운 것을 쉽게 들어 올리는 방법을 (도출해) 거중기를 만들었습니다. 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가 적용된 장치로, 사람들이 밧줄을 당기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이 (작용해)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성곽을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거중기 덕분에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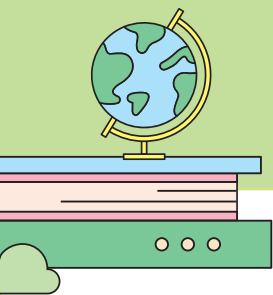
⇒ 정약용은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 화성을 짓는 기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 3 정약용의 계획을 바탕으로 여러 기술자들은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방어 시설을 갖춰 수원 화성을 지었습니다. 수원 화성의 팔달문에는 아군이 적군을 사방에서 (제거할) 수 있는 옹성을 만들었고, 성벽 곳곳에는 아군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포루를 만들었습니다.

⇒ 정약용의 계획을 바탕으로 기술자들은 흔히 않은 방어 시설을 갖춰 수원 화성을 지었습니다.

- 4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완성한 수원 화성은 뛰어난 건축 기술이 담긴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관광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 뛰어난 건축 기술이 담긴 수원 화성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1 ① X
2 ① O
3 ① O

2 ③

3 ①

4 정조 / 수원 화성



- 1 ① 수원 화성을 짓고자 했던 사람은 세종이 아닌 정조이다.
- 2 거중기를 이용하면 무거운 물체도 작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다.
- 3 '불가능하다'는 '할 수 없거나 될 수 없다.'라는 뜻이며, 이와 반대되는 낱말은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다.'라는 뜻의 '가능하다'이다. ② '분리하다'는 '서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다.'라는 뜻이고, ③ '실패하다'는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않거나 그르치다.'라는 뜻이며, ④ '터득하다'는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내다.'라는 뜻이다.
- 4 이 글은 정조의 지시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완성한 수원 화성이 세계적인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공부한 서술어를 활용해 말풍선을 완성하세요.

사람이 직접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것은

불 **가** **능** 해 보이네.

걱정 말게.
정약용이 해결책을

도 **출** 했다고 하더군.





정답

1 (얼거나 | 주거나)
(나누다 | 모으다)

2 ㉠

3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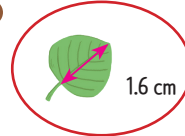
4 ① X

② O

5 뎨석기

6 ①

7 ③



풀이

- 1 '채집하다'는 '널리 찾아서 얻거나 캐거나 잡아 모으다.'라는 뜻이다.
- 2 ㉠, ㉡, ㉢에는 '채집하다'를 사용하기에 알맞지만, ㉣은 채소를 샀다는 의미이므로 '물건 등을 사들이다.'라는 뜻의 '구입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3 ㉠의 '채집하다'는 '널리 찾아서 얻거나 캐거나 잡아 모으다.'라는 뜻으로, 이 글에서는 '채취하다', '캐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물건을 흙이나 다른 물건 속에 넣어 보이지 않게 쌓아 덮다.'라는 뜻의 '묻다'와는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4 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지면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옮겨 다니며 살았다.
- 5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 내서 만든 뎨석기를 도구로 사용했다.
- 6 ㉡의 '채집하다'는 '널리 찾아서 얻거나 캐거나 잡아 모으다.'라는 뜻이다. ②는 '심다', ③은 '찾아내다'의 뜻이다.
- 7 2 이상은 2와 같거나 큰 수를, 4 이하는 4와 같거나 작은 수를 의미한다. 지오는 2 cm 이상, 4 cm 이하인 나뭇잎을 채집해야 하므로 1.6 cm의 나뭇잎은 채집하지 않아도 된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풍부하다

2 ②

3 ④

4 ①

5 ① ㉠

② ㉡

③ ㉢

④ ㉣

6 ③

7 ① X

② O

8 3/1/2



풀이

- 1 '많다'는 '넉넉하고 많다.'라는 뜻의 '풍부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2 ①, ③은 어떤 것이 많다는 뜻이지만, ② '부족하다'는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이다.
- 3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는 다양한 편의 시설이 풍부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편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 4 ①의 '풍부하다'는 '넉넉하고 많다.'라는 뜻이며, ②는 '부족하다'의 뜻이다.
- 5 ① 산지에서는 약초나 목재를 얻고, ② 하천에서는 생활용수를 얻는다. ③ 해안에서는 어업이나 양식업을 하며 ④ 평야에서는 주로 농사를 짓는다.
- 6 ㉠의 '풍부하다'는 '넉넉하고 많다.'라는 뜻으로,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의 '부족하다'와 뜻이 반대된다. ① '교류하다'는 '문화나 사상 등을 서로 통하게 하다.'라는 뜻이며, ② '넉넉하다'는 '크기나 수량 등이 기준에 차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뜻으로 '풍부하다'와 뜻이 비슷하다.
- 7 ①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의 압박 속에 강력한 나라로 발전하지 못하고 신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다.
- 8 가야는 김수로가 세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가야 연맹을 이루었다. 이후 금관가야의 세력이 약해지자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이끌었지만 강력한 나라로 발전하지 못하고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부족함



보통



잘함

본문 93~95쪽



정답

1 (평범하다 | 뛰어나다)

2 ③

3 ②

4 ②

5 ① ㉠

② X

6 현주

7 ②

8 ① 돌

② 간석기

③ 토기



풀이

- 1 '정교하다'는 '숨씨나 기술 등이 빈틈이 없고 뛰어나다.'라는 뜻이다.
- 2 '빈틈이 없고 뛰어나다.'라는 말은 '정교하다', '정밀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허술하다'는 '치밀하지 못하고 엉성하여 빈틈이 있다.'라는 뜻이다.
- 3 '정교하다'는 '숨씨나 기술 등이 빈틈이 없고 뛰어나다.'라는 뜻으로, ②에는 '산뜻하고 뚜렷해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않다.'라는 뜻의 '선명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4 ㉠의 '정교하다'는 '숨씨나 기술 등이 빈틈이 없고 뛰어나다.'라는 뜻이다. ①은 '허술하다'의 뜻이다.
- 5 ② 로버트 혹은 벼룩의 모습을 책의 한쪽 면을 다 채울 정도로 크고 자세하게 그렸다.
- 6 사람들은 로버트 혹은 정교하게 그린 벼룩의 모습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다.
- 7 ㉠의 '정교하다'는 '숨씨나 기술 등이 빈틈이 없고 뛰어나다.'라는 뜻으로, '빈틈이 없을 정도로 꼼꼼하고 자세하다.'라는 뜻의 '정밀하다'와 뜻이 비슷하다. ① '단순하다'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라는 뜻이고, ③ '투박하다'는 '생김새가 불품없이 둔하고 튼튼하기만 하다.'라는 뜻이다.
- 8 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 끝에 돌을 매달아 사용했다. ② 사냥을 할 때 돌을 갈거나 다듬어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으며, ④ 음식을 저장하거나 만들 때 빗살무늬 토기를 빚어 사용했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 | | |
|--------|---------------------|
| 1 착용했다 | 5 ② |
| 2 ④ | 6 ① |
| 3 ㉠ | 7 ③ |
| 4 ② | 8 전차 / 학문 / 착용 / 한복 |



풀이

- 빈칸에는 '의복, 모자, 신발, 액세서리 등을 입거나 쓰거나 신거나 차다.'라는 뜻의 '착용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착용하다'는 몸에 입거나 쓰거나 신거나 차는 대상에 사용해야 하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 ㉡, ㉢에는 '착용하다'를 사용하기에 알맞지만, ㉣에는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쓰다.'라는 뜻의 '사용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과 반대되는 낱말은 '사람이 착용한 물건을 몸에서 떼어 내다.'라는 뜻의 '벗다'이다. ① '메다'는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라는 뜻이고, ③ '쓰다'는 '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어쓰다.'라는 뜻이다.
- 거울로 햇빛을 반사해 검은색 도화지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할 때는 실험 안전을 위해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 햇빛을 비춘 뒤 도화지의 온도가 높아진 실험 결과를 통해 빛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 ㉣의 '착용하다'는 '의복, 모자, 신발, 액세서리 등을 입거나 쓰거나 신거나 차다.'라는 뜻이다. ①은 '적용하다'의 뜻이고, ②는 '남용하다'의 뜻이다.
- 전차가 운행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편리해졌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새로운 학문을 배웠으며, 서양식 의복이나 한복을 고쳐 입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한 외국의 식료품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정답

1 ① ㉠

2 ㉡

2 ②

3 ②

4 (천주교 | 불교)

(연등회 | 탈놀이)

(훈민정음 | 팔만대장경)

5 ① X

2 ㉠

6 ②

7 취재 / 대본 / 편집



풀이

- 1 ①은 전구를 켜다는 의미이므로 '밝히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는 알려지지 않은 과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드러낸다는 의미이므로 '밝히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2 이 문장에서 '밝히다'는 드러나지 않은 정체를 알린다는 뜻으로 '드러내다'와 뜻이 비슷하다. ① '감추다'는 '남이 보이거나 찾아내지 못하도록 가리거나 숨기다.'라는 뜻이고, ③ '의심하다'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다.'라는 뜻이다.
- 3 ㉠의 '밝히다'는 '빛을 내는 물건에 불을 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①은 '좁히다'의 뜻이고, ③은 '밝히다'의 다른 뜻이다.
- 4 고려 시대 사람들은 불교를 널리 믿었으며, 부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며 연등회라는 행사를 열었다. 몽골이 침입했을 때는 나라의 위기를 부처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 5 ① 고려 시대에는 왕실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널리 믿었다.
- 6 ㉡은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등을 드러내 알리다.'라는 뜻으로, ①, ③의 '밝히다' 역시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의 '밝히다'는 '빛을 내는 물건에 불을 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7 뉴스를 만들 때는 회의를 통해 뉴스거리를 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취재한 뒤,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 뉴스 대본을 쓴다. 그리고 대본을 바탕으로 뉴스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 뉴스를 완성한다.





독해 Point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 중, 유물과 유적을 통해 짐작한 과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역사적 흔적으로 어떤 모습을 알 수 있는지 파악하며 글을 읽어 보세요.

- 1 역사적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아주 먼 옛날의 모습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남긴 유물과 유적을 통해 그들의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남긴 흔적에는 그 시대의 환경과 생활 모습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유물과 유적으로 당시의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이유

⇒ 유물과 유적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2 먼저 선사 시대의 유물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도구를 활용했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뿔썰기를 보면, 사람들이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집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농사를 시작해 이전보다 먹을거리가 풍부했는데, 빗살무늬 토기를 통해 사람들이 음식을 저장하며 지냈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유물로 알 수 있는 생활 모습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 알 수 있는 생활 모습

⇒ 선사 시대의 유물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도구를 활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3 삼국 시대의 왕족 무덤에서 나온 유물은 당시 지배층의 화려한 생활 모습을 짐작하게 합니다. 신라 왕족의 무덤에서 발견된 금관과 금제 허리띠, 백제 왕족의 무덤에서 출토된 금귀고리, 금팔찌 등은 당시 지배층이 화려한 장신구를 높은 신분과 권위를 드러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 시대의 유물로 알 수 있는 생활 모습 ①

삼국 시대의 유물로 알 수 있는 생활 모습 ②

⇒ 삼국 시대의 유물을 통해 지배층의 화려한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4 고려 시대의 유물은 당시 사람들의 뛰어난 예술 수준을 보여 줍니다. 고려를 대표하는 공예품인 고려청자는 푸른 빛깔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도자기에 새겨진 무늬가 매우 정교합니다. 이를 통해 고려 사람들이 공예에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물과 유적은 과거의 다양한 모습을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흔적입니다.

고려 시대의 유물로 알 수 있는 생활 모습 ①

고려 시대의 유물로 알 수 있는 생활 모습 ②

유물과 유적이 중요한 이유

⇒ 고려 시대의 유물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뛰어난 예술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1 ① ○
② X
③ X

- 2 ① L
② G
③ T
3 ②
4 ③



- 1 ②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에 사용되었다. ③ 유물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유물을 사용했던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다.
- 2 ① 뎨석기를 통해 도구를 활용했던 모습을 알 수 있고, ② 고려청자를 통해 고려 사람들의 뛰어난 예술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금관, 금귀고리를 통해 당시 지배층의 화려한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3 ㉠에는 '의복, 모자, 신발, 액세서리 등을 입거나 쓰거나 신거나 차다.'라는 뜻의 '착용하다'가 들어가야 알맞다. ① '제안하다'는 '안이나 의견으로 내놓다.'라는 뜻이고, ③ '추측하다'는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리다.'라는 뜻이다. ④ '평가하다'는 '어떤 대상의 가치나 수준 등을 헤아려 정하다.'라는 뜻이다.
- 4 유물과 유적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다양한 모습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부한 서술어를 활용해 말풍선을 완성하세요.





실력 확인

1회

○ 맞힌 개수

/ 15개

본문 106~107쪽

- 1 ㉠ 2 ㉡ 3 ㉢
 4 ㉣ 5 ㉤ 6 관측했다
 7 조절했다 8 흡수한다 9 ㉥
 10 ㉦ 11 ㉧ 12 적용했다
 13 정교했다 14 소모된다
 15 ㉨ 착용 ㉩ 작용

- 1 '추진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2 '정화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3 '채집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4 ㉤은 '설계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5 ㉣은 '정교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6 바람의 이동 경로를 관찰하는 것이므로 '관측하다'를 사용한다.
- 7 소리의 세기를 적당하게 맞춘 것이므로 '조절하다'를 사용한다.
- 8 뿌리가 땅속 영양분을 빨아서 거두어들인다는 것이므로 '흡수하다'를 사용한다.
- 9 폭설로 야외 농구장에서 농구 시합을 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다'를 쓰고, 실내 농구장에서 농구 시합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를 사용한다.

10 첫 번째 문장은 집을 만들 때 계획을 세워 도면 등으로 나타낸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문장은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이므로, 공통으로 '설계하다'를 사용할 수 있다.

11 ㉥의 '풍부하다'는 '넉넉하고 많다.'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아 야생 동물이 먹을 물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부족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2 새로운 기술을 제품 개발에 알맞게 이용한다는 것이므로 '적용하다'를 사용한다.

13 조각품의 표현이 빈틈이 없고 뛰어나다는 것이므로 '정교하다'를 사용한다.

14 배터리가 빠르게 쓰여 없어진다는 것이므로 '소모되다'를 사용한다.

15 가로 ㉨ 햇볕이 강해 모자를 썼다는 것이므로 '착용하다'를 사용한다. 세로 ㉩ 자석의 같은 극 사이에는 밀어 내는 힘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므로 '작용하다'를 사용한다.



2회

○ 맞힌 개수

/ 157개

본문 108~109쪽

- | | | |
|--------------------|---------|---------|
| 1 L | 2 ㄱ | 3 ㄹ |
| 4 E | 5 ③ | 6 ① |
| 7 ③ | 8 ②, ③ | 9 적용했다 |
| 10 정교했다 | 11 ④ | 12 확보했다 |
| 13 수확했다 | 14 도출했다 | |
| 15 추진했습니다 / 정화했습니다 | | |

- 1 '밝히다'는 '빛을 내는 물건에 불을 켜다.'라는 뜻이다.
- 2 '소모되다'는 '쓰여 없어지다.'라는 뜻이다.
- 3 '작용하다'는 '어떠한 힘이나 원인이 다른 대상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다.
- 4 '예측하다'는 '어떤 것을 미리 헤아려 짐작하다.'라는 뜻이다.
- 5 '조절하다'는 '균형이 맞게 바로잡다.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가다.'라는 뜻으로, '어떤 기준이나 상황에 맞게 정돈하다.'라는 뜻의 '조정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6 '관측하다'는 '눈이나 기계로 자연 현상이나 기상 상태, 변화 등을 관찰하여 양, 거리 등을 재다.'라는 뜻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의 '관찰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7 관찰 시 안전을 위해 보안경을 써야 하므로 '착용하다'를 사용하고, 관찰이 끝난 후에 보안경을 몸에서 떼어 내는 것이므로 '벗다'를 사용한다.

- 8 희귀한 식물을 찾아서 얻었다는 의미이므로, '채집하다'와 '채취하다'를 사용한다.
- 9 의사가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방법을 알맞게 맞추어 쓴다는 것이므로 '적용하다'를 사용한다.
- 10 벽화를 그린 솜씨가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므로 '정교하다'를 사용한다.
- 11 제시된 문장에서 '풍부하다'는 '넉넉하고 많다.'라는 뜻으로, 반대되는 의미의 낱말은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의 '부족하다'이다.
- 12 실험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가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확보하다'를 사용한다.
- 13 농부가 벼를 거두어들인다는 것이므로 '수확하다'를 사용한다.
- 14 회의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므로 '도출하다'를 사용한다.
- 15 구청이 목표한 사업을 밀고 나아간다는 의미이므로 '추진하다'를 사용한다. 또한 하천에 장비를 설치해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이므로 '정화하다'를 사용한다.

3회

○ 맞힌 개수

/ 15개

본문 110~111쪽

- | | | |
|--------------|--------|--------|
| 1 풍부하다 | 2 적용하다 | 3 정교하다 |
| 4 조절하다 | 5 ㉠ | 6 ㉡ |
| 7 ㉢ | 8 ㉣ | 9 ㉤ |
| 10 ㉥ | 11 ㉦ | 12 ㉧ |
| 13 ㉨ | 14 ㉩ | |
| 15 ㉪ 예측 ㉫ 관측 | | |

- 1 '풍부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2 '적용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3 '정교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4 '조절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5 생각을 드러내 알린 것이므로 '밝히다'는 ㉠의 뜻으로 쓰였다.
- 6 촛불에 불을 켜는 것이므로 '밝히다'는 ㉠의 뜻으로 쓰였다.
- 7 '확보하다'는 '어떤 것에 대해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보여 주거나 어떤 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다.'라는 뜻의 '보유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8 '추진하다'는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일 등을 처리하여 나가다.'라는 뜻의 '진행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9 잡초를 없애 버린다는 것이므로 '제거하다'를 사용한다.

- 10 오염된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므로 '정화하다'를 사용한다.
- 11 인공지능이 결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므로 '도출하다'를 사용한다.
- 12 수영모를 머리에 쓴다는 것이므로 '착용하다'를 사용한다.
- 13 ㉠의 '흡수하다'는 '빨아서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이고, ㉡와 ㉢의 '흡수하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 등을 내부로 모아들이다.'라는 뜻이다.
- 14 '불가능하다'는 '할 수 없거나 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반대되는 의미의 낱말은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다.'라는 뜻의 '가능하다'이다.
- 15 가로 ㉠ 상대 팀의 전략을 미리 짐작했다는 것이므로 '예측하다'를 사용한다. 세로 ㉡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했다는 것이므로 '관측하다'를 사용한다.